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집회는 선교회로 모입니다. 총회로 모여서 한 해의 활동을 정리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제7 여선교회가 주관하는 초록장터가 교회 마당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유기농으로 농사지은 천안 단비교회 쌀을 판매합니다. 이번 주일까지 신청 받고 판매는 다음 주일(16일)에 합니다.

교회학교 부장회의가 오후 1시에 교사실에서 있습니다.

각 부와 선교회는 일년 동안의 활동을 A4 한 장 이내로 정리하여 11월 30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옷장을 열어 잘 입지 않는 옷을 한 벌 이상 정리하십시오. 마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새교우 소개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8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www.chungpa.or.kr

자비하신 하나님,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며 섭리자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비록 우리들 눈에는 아주 더디어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인류를 사랑과 정의의 세계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간혹 당장 눈앞에 닥친 어려움에 당황하며 주님의 크신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 약속의 주님, 함께하시는 주님을 발견케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몸이 아픈 이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약해진 몸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어두운 그늘이 들지 않도록 늘 지켜주십시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있음이 그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속히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십일조헌금:**

박시내 장영숙 윤정덕 구성실 한상익 정영선 강인식 김정숙 김준우  
 우순덕 김용길 최영혜 박규석 박경선 김희진 박홍재 백묘현 오진훈  
 노순옥 윤미경 윤영원 이선희 윤수진 이광형 형인순 이정규 이인섭  
 정은영 최도현 조관행 홍선희 전세종 오정숙 김재흥 최희영 김주경  
 김경연 권미숙 김정민 서원금 배삼순 권호철

**월정헌금:**

김종문 지명주 김종철 고영애 김현영 정원석 문금석 박옥순 송의섭  
 안길상 이형숙 윤성종 김윤정 이병철 김현진 이성범 정두리 김수진  
 김승형 박범희 박미영 구자훈

**감사헌금:**

조병무 송양진 조병주 오정숙 전성오 김대근 최종미 김필순 전세종  
 권미숙 이정은 김용진 박효선 박병구 최도현 노혜민 하정석 무명1

**녹색공헌금 :**

김재흥 임승동 김재환 무명1 (누계: 5,566,000원)

	장혜숙	장혜숙	연 합 숙 회	오송경
	노순옥	정경례		정경례
	임정자	임정자		이소순
	문영혜	박경선		문영혜
	안정숙	박애순		박애순
	박홍재	곽권희		백묘현
	박효선	허정운		박효선
	최숙화	권미정		최희정
	이순정	김금순		오복순
	이형숙	권미숙		황선희
	안홍숙	오현정		임수연
	백혜숙	정옥영		강미라
	송양진	유경순		김수진
	이영란	박미영		윤정화
	박혜경	최영혜		조항미

# 새로운 길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 내일도 .....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운동주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장로 :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욕심에 찬 마음으로는 한치 앞도 제대로 볼 수 없음을 잊지 마십시오. 교만한 마음을 버리십시오. 오히려 겸손히 섬기며 사십시오. 남을 섬김,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아멘. 분수를 깨닫지 못하고 허영에 부푼 마음으로 살았음을 반성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작음을 늘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자리일수록 멀리하며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11월 선교회 모임	성서로 배우는 평화 / 김기석 목사
찬양 인도 : 장성호	기도 / 장재영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곽권희 집사 조병무 장로	인도자 권미정 집사

11월	영접위원	윤석철    홍순구    박규석    안정숙    안홍숙    박경선
	헌금위원	구성실 정경례(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고난 묵상

시편 34편

19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베드로전서 3장

9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의로운 사람은 불의한 자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고난을 받는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매우 자연스럽게 당연한 일처럼 보이는 것들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그는 불의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부조리와 몰지각함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세상은 “다 그런거지 뭐.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래야만 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의로운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뭐가 다 그런거야?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잖아?” 의로운 사람은 항상 이런 식으로 괴로워한다. 그는 언제나 이 세상 속으로 소위 ‘하나님의 의식(意識)’을 가져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고난받으시듯이 고난에 가득 찬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이 겪는 모든 종류의 고난이 아니라, 반드시 의인이 겪는 고난에서야 발견할 수 있다. 의인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항상 의인과 함께계시며, 의인은 자신이 겪는 고난이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게 되기까지의 훈련 과정임을 잘 알고 있다. 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바로 이것이 그의 구원이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의인은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난에 대하여 오로지 축복으로 응답한다. 그리고 그 축복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의인과 더불어 비난이나 책망이 아니라 축복으로 응답해 주신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세상에는 희망이 전혀

없을 것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의인의 축복에 의해 살아가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축복이란 누구(또는 무엇)에게든 손이 얹으며 “너는 하나님의 것이니라”하고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세상에 대하여 바로 이런 식으로 응답하여야 한다. 우리는 결코 세상을 저주하거나 증오했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서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해야 한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함께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신다. 그리고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축복 그 자체가 되어야만 한다. 비록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게 된다.

예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팔을 들어 축복하셨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그분의 다정한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지켜 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얼굴을 들어 여러분에게 비취 주시고 평화와 은총을 베풀어주십니다.” 아멘

- 본회퍼

이 명상 자료는 1944년 6월 8일, 본회퍼가 테겔 형무소로부터 에버하르트 베트게 부부에게 짧은 편지와 함께 보낸 것이다. 본 회퍼는 1943년 3월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하였다가 한 달 후인 4월에 투옥되었다. 1944년 6월까지만해도 그는 공판 날짜를 기다리면서, 동료들을 다시 볼 수 있으리라는 얼마간의 희망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1944년 7월 20일, 이 암살 계획에 가담했던 군 장교들의 명단이 밝혀지면서 그 같은 희망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본회퍼는 체포되기 불과 몇 달 전에 마리아 폰 베더마이어라는 여인과 약혼한 터였고, 그녀와의 이별은 그의 인생에 또 다른 차원의 고통을 더하였다.